



■ 9월 전문인 초청 진로특강 운영계획

1. 전문인(조명 디자이너) 초청 진로특강

- 일시: 2018. 9. 5.(수) 18:00~19:30
- 주제: 조명 디자이너의 역할
- 강사: 한미라 디자이너

(서울청계천 및 대전월드컵경기장 경관조명 등 공공서 디자인 다수 참여)

- 장소: 희망도서관(진팅다사 9층)
- 참가대상: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중고등학생 15명

2. 전문인(의사) 초청 진로특강

- 일시: 2018. 9. 12.(수) 18:00~19:30
- 주제: 의사의 길
- 강사: 송혜근 박사(前 서울아산병원 내과전문의)
- 장소: 희망도서관(진팅다사 9층)
- 참가대상: 의료업에 관심이 있는 중고등학생 15명

■ 조명 디자이너 ■

빛을 이용해서 장소 및 공간의 성격에 적합한 조명에 인위적으로 색깔을 입히고 생동감을 불어넣는 등 빛을 조절하여 공간을 표현하는 일을 하며, 또한 조명의 계획 및 설계, 시공, 감리, 감독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 조명 디자인(경관 디자인 또는 빛디자인) ■

조명기구를 디자인하는 제품디자인과 공간의 빛(실내,실외)을 디자인하는 분야로 나누어 구분한다.

■ 조명 디자이너의 진로 및 전망 ■

조명관련회사, 인테리어 전문업체, 건설회사 인테리어 사업부, 백화점 매장 디자인, 방송국 무대장치, 가구디자이너, 모델하우스 전문시공업체, 디스플레이 전문업체, 가구 디자인, 실내장식가, 각종 호텔 기획실, 학원 강사, 이벤트 행사장 등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조명에 고도의 설계기술, 신제품 조명기구의 개발 등에 대한 요망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유망한 직업 중의 하나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명디자이너 [Lighting designer]

■ 의사 ■ 본교 발행한 직업관련 드림레터 1호. 의사편 참고

■ 제2회 진로의 날 개최

상해한국학교(교장 신현명)는 지난달 4일(수) ‘2018 SKS 진로의 날’ 행사를 중고등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일제로 실시했다. ‘진로의 날’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며 자질을 계발·신장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다.

오전에는 7~9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직업적성/흥미2종/가치관/성숙도 검사)를 실시하여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 나의 꿈버튼 만들기 행사를 실시하고 교내 게시판에 자신의 꿈버튼을 전시했다.



또한 10~11학년 학생은 항공업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색동 나래교실 직업교육도 실시했다. 특히 오전에는 상해한국학교와 아시아나항공 상하이점(지점장 유병국)과의 업무 협조 약정식을 갖고 앞으로 상해한국학교의 진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후에는 상하이에 거주하는 직업인을 초빙해 직업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기자, 의사, 심리상담, 교사, 마케팅 PD, 패션 디자이너, 군인, 작곡가, 외교관 등 20명이 직업에 대한 경험담, 자격 요건, 보수, 직업의 미래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진행했다.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직업인 멘토링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학과 및 직업을 선택해 전공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직업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인과의 만남으로 각 분야의 직업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업인으로서의 자세를 배우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 좋은 시간이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상하이저널 보도기사중 일부/

진로의 날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내 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유익했다.	54.5	33.1	11.2	1.2	0.0
2. 프로그램 기획에 만족한다.	55.0	33.1	10.3	1.6	0.0
3. 강사님의 강의내용에 만족한다.	58.3	33.5	7.0	1.2	0.0
4. 진로나 학과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39.3	37.6	19.4	2.9	0.8
5. 나는 오늘 열심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47.1	36.3	14.5	2.1	0.0
6. 내년에도 진로의날 프로그램을 열었으면 좋겠다.	57.9	27.3	8.3	3.3	3.3

진로의 날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기말고사 후 행사가 이루어져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행사에 임할 수 있었다. 만족도는 대부분 항목에서 80~90%로 나타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진로나 학과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항목의 만족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것은 강좌의 수가 부족하고 일부 강좌는 학생이 몰리면서 자신의 진로에 맞지 않는 강좌를 들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학생들이 몰렸던 디자이너와 심리학자 등 직업인 특강을 월별 진행되는 전문인 초청 진로특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드림레터를 통하여 안내하고자 한다.

진로의 날 활동소감

11학년 최성은: 항상 학교에서 선생님을 뵙지만, 선생님들의 고충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번 멘토링을 통해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다.

7학년 최진서: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이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트레이너와 같이 스포츠인을 도와주는 직업 등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도 관심 있는 IT분야와 스포츠를 결합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진로의 날을 함께 기획하고 진행한

또래 진로코치단의 활동 소감

11학년 김예솔(상담팀): 이번 행사는 내가 진로코치단으로 활동한 첫 번째 진로의 날이었다. 물론 내가 진로코치단으로서 학생들에게 꿈버튼을 만들 재료를 나누어 주고,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일을 했지만, 이번 진로의 날 행사가 내게 평소보다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행사 몇 주 전부터 분주히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진로코치단 친구들의 모습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꿈버튼 만들기 행사에서 7학년 교실에 도우미로 들어갔을 때였다. 나는 '7학년들의 꿈은 대부분 축구선수, 연예인, 선생님 이런 것들이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꿈버튼을

완성하고 보니 그런 생각들이 짝 사라졌다. 후배들의 꿈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했고 구체적이었고 열정이 가득 담겨있었다.

각자 만든 꿈버튼을 소개하는 순서에서, 선생님께서 내 꿈도 소개할 기회를 주셨다. 나는 쭈뼛거리며 유니세프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평소에 내 꿈에 대해 말하면, 유니세프 취직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던 터라 후배들 앞에서도 소심해졌던 것 같다. 그런데 후배들은 진심이 가득하다는 듯한 눈을 하고 나를 응원해주었다. 내 꿈뿐만이 아니었다, 후배들은 어쩌면 어른들보다도 더 어른스럽게 하나같이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것이었다. 이번 진로의 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그만큼 깨달은 점도 많았고 무엇보다 내 꿈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다른 진로코치단 친구들에게도 이번 진로의 날이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11학년 고애진(동아리회장): 회장으로서 진로 코치단을 단원들과 함께 운영하며 느꼈던 점들이 참 많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은 진로의 날 행사를 준비하던 때인데, 모든 단원들이 본인이 맡은 바에 열심을 다하던 모습이 참 좋았다.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 남아 준비를 하기도 했고 점심을 먹을 시간이 부족했을 정도로 열심히 본인들의 시간을 쓴 것이 고맙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다. 다음 학기에도 함께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10-3 유제아 그래픽디자인



10-5 김수현 그래픽디자인



■ 계열 학과별 중점학습과목

계열	학과	중점학습과목
인문계열	국문학과	국어, 영어
	사학과	영어, 사회(한국사/세계사)
	영문학과	영어, 사회(세계사/세계지리)
	제2외국어학과	영어, 사회(세계사/세계지리)
	철학과	국어, 사회(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
기타		
사회과학계열	사회복지학과	국어, 사회(법과정치/사회문화)
	사회학과	국어, 사회(경제/사회문화)
	신문방송학과	국어, 사회(한국사/윤리와 사상/사회문화)
	심리학과	국어, 수학
	정치학과	영어, 사회(법과정치/사회문화)
	행정학과	국어, 사회(한국사/법과정치/경제)
	기타	
경영계열	경영학과	영어, 수학
	경제학과	수학, 사회(경제)
사범계열	교육학과	전공관련 해당과목
예체능계열	미술학과	미술, 영어
	음악학과	음악, 영어
	체육학과	체육, 영어
생활과학계열	식품영양학과	수학, 과학(생명과학/화학)
	의류학과	수학, 과학(화학)
공과계열	주거환경학과	영어, 수학
	건축공학과	수학, 과학(물리)
	기계공학과	수학, 과학(물리)
	산업공학과	수학, 과학(물리)
	생명공학과	수학, 과학(생명과학/물리)
	전자정보학과	수학, 과학(물리)
	컴퓨터공학과	수학, 과학(물리)
	토목공학과	수학, 과학(물리)
	화학공학과	수학, 과학(물리)
	기타	
자연과학계열	물리학과	수학, 과학(물리)
	생명과학과	수학, 과학(생명과학)
	수학과	수학, 과학(물리)
	지구과학과	수학, 과학(지구과학)
	통계학과	수학, 영어
	화학과	수학, 과학(화학)
의과계열	간호학과	영어, 과학(생명과학/화학)
	수의학과	영어, 과학(생명과학/화학)
	의학과	영어, 과학(생명과학/화학)
	치의학과	영어, 과학(생명과학/화학)

*Wise Mentor 자료 참조(위 표는 참고용으로 제시하였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및 학과 홈페이지의 교육과정 등을 참고바랍니다.)

■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법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생 스스로 학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 일과 중 시간관리

수업 내용 핵심정리는 수업이 끝난 직후 바로 작성한다. 이는 3분 정리의 개념이다. 학습이 끝난 후 3분 동안 수업의 내용을 정리해서 선생님이 강조하신 핵심내용 요약,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작성한다.

일자	시간	과목	단원/진도	수업내용 핵심정리	수업 참여도
/	1				
	2				
	3				
	4				
	5				
	6				
	7				
	8				

<작성예시>

시간/과목	단원/진도	수업내용 핵심정리	수업 참여도
1 독서와 문법	음운의 변동 p120~124	- 사잇소리 현상(음운첨가)의 3가지 유형 - 사례 확인을 통해 정리할 것 - 편소리되기와의 차이점에 대해 질문할 것!	90% 발표×

■ 시간일기-주중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17:00~17:30					
17:30~18:00					
18:00~18:30					
중간 생략					
22:30~23:00					
23:00~23:30					
23:30~24:00					

■ 시간일기-주말, 공휴일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09:00~09:30					
09:30~10:00					
중간생략					
23:00~23:30					
23:30~24:00					

<작성예시>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15:00~15:30	수업♥				
15:30~16:00	수업♥				
16:00~16:30	문학 교재 1,2장	독서와 문법 교과서, 프린트	방과후수업 -생명과학-	문학 교재 3,4장	독서와 문법 문제풀이 3,4장
16:30~17:00	석식				
17:00~17:30	석식				
17:30~18:00	석식				
18:00~18:30	석식				
18:30~19:00	수학 1교재 8~9장	수학 2교재 1~3장	수학 1교재 10~11장	수학 2교재 3~6장	수학 기출문제풀이
19:00~19:30	석식				
19:30~20:00	석식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알림마당-진로 및 상담에 올려 두었으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고, 처음에는 일주일 단위로 실천내용을 점검한 후 계획을 한 달, 한 학기 단위로 늘려 나갑니다.

■ 4차 산업혁명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바프는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바이오와 물리학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융합 기술 혁명”으로 정의하고 정치·경제·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은 정보를 자동으로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하나로 연결한 O2O(Online-To-Offline) 체계를 구축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자동으로 처리된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생산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정보를 수동적으로 온라인에 입력해야 했던 3차 산업혁명과 구별된다.

■ 3대 핵심 기술 영역 ■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한 핵심 기술 영역이다.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의 발전은 가상 환경과 물리 환경을 통합한 가상 물리 시스템(Cyber - Physical System)을 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 5대 주요기술 ■

인터넷(IoT), 로봇 공학,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 4차 산업혁명에서 변화를 이끄는 5대 주요 기술로 꼽힌다.

기술	내용
사물 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에 센서를 부착, 네트워크 등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통신 기술 ■ IoT + 인공지능(AI) + 빅데이터 + 로봇 공학 = 스마트 공장
로봇 공학 (Robotics)	로봇 공학에 생물학적 구조를 적용, 적응성 및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 로봇 공학 + 생명과학 = 병원 자동화 로봇
3D 프린팅 (Additive manufacturing)	3D 설계도나 모델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료를 쌓아 물체를 만드는 제조 기술 ■ 3D 프린팅 + 바이오 기술 = 인공 장기
빅데이터 (Big Data)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 빅데이터 + 인공지능 + 의학 정보 = 개인 맞춤 의료
인공지능 (AI)	사고·학습 등 인간의 지능 활동을 모방한 컴퓨터 기술 ■ 인공지능 + 사물 인터넷 + 자동차 = 무인 자율 주행 자동차



[출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할 미래 직업 체험, 씨마스]

■ 읽을거리: AI 교사와 무인 편의점



19세기 초 산업혁명으로 영국에 방직기 등 직물기계가 보급되면서 가내 수공업 종사자들이 실업자가 되거나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다. 이들은 가난의 원흉이 기계 때문이라며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일으킨다.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의 명암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같은 ‘노동의 종속’은 가속화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전통 산업 체계를 뒤흔들며 육체노동 현장은 물론 인간의 사고 영역까지 파괴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내년부터 AI 로봇이 초등학교 영어 말하기 교사로 등장한다. 일본 NHK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학생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공지능을 가미한 로봇이 가치판단과 상호교감이 필요한 교육 영역에까지 침투하는 셈이다. 로봇이니 수업 시간 내내 떠들어도 지치지 않을 게다. 하지만 수업 당시 마음가짐에 따라 제각각일 개별 학생과의 ‘수업을 통한 사회화’라는 교육 가치도 이뤄 낼지 지켜볼 일이다.

한국세븐일레븐은 본사 등 4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세븐일레븐 익스프레스’라는 무인 편의점을 오는 9월부터 상용화한다. 소비자가 자판기에서 음료·스낵·푸드·가공식품·비식품 등 200여개 상품 가운데 원하는 상품을 골라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결제하고 사는 방식이다. 도시락, 라면 등 30여종의 푸드 상품은 자판기 안의 실물을 확인하고 상품별 번호(두 자리수)를 입력한 뒤 결제하면 된다. 나머지 상품은 키오스크 화면에서 제품을 골라 구매할 수 있다. 기존 편의점주에 한해 개설한다는데, 24시간 운영 가능한 무인 편의점이 가맹점 매출 증대로 이어질지 궁금하다.

상품 판매나 교육현장에 투입된 기계는 인간처럼 불평할 줄 모른다. 노사 갈등은 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인간소외와 고용절벽에 따른 사회병리 현상은 심화된다.

[출처: 서울신문, 2018-08-20, 박현갑 논설위원]